

하상주보

천주교 성 정 바오로 성당
ST. PAUL CHUNG CATHOLIC CHURCH
Catholic Diocese of Arlington, Virginia

2024년 7월 7일
제2008호

주임 신부 : 김태진 베네딕토

보좌신부 : 이태섭 요한사도

사도 회장 : 강세원 바오로

연령 회장 : 홍의훈 요셉 (703 966 8206)

사무실 : 703 968 3010

팩 스 : 703 968 3013

주소 : 4712 Rippling Pond Drive, Fairfax, VA 22033

이메일 : sthasang@gmail.com

기도로 힘을 얻어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

“보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하리라.”(묵시 21,5)

“예언자는 어디에서나 존경받지만
고향과 친척과 집안에서만은 존경받지 못한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서는
그곳에서 몇몇 병자에게 손을 얹어서
병을 고쳐 주시는 것밖에는
아무런 기적도 일으키실 수 없었다.
그리고 그들이 믿지 않는 것에 놀라셨다.

(마르 6,4-6)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예수님〉, 제롬 나달

연중 제14주일 (나해)

제 1 독서 예제 2,2-5 | 반항의 집안도 자기들 가운데에 예언자가 있다는 사실만은 알게 될 것이다.

화답송 시편 123(122) | ◎ 저희는 주 하느님을 우러러보며 당신 자비만을 바라나이다.

제 2 독서 2코린 12,7L-10 | 나는 그리스도의 힘이 나에게 머무를 수 있도록 나의 약점을 자랑하렵니다.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주님의 영이 내 위에 내리셨다.

주님이 나를 보내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복음 마르 6,1-6 | 예언자는 어디에서나 존경받지만 고향에서만은 존경받지 못한다.

예언자는 어디에서나 존경받지만 고향에서만은 존경받지 못한다.

그때에¹ 예수님께서 고향으로 가셨는데 제자들도 그분을 따라갔다.
² 안식일이 되자 예수님께서서는 회당에서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많은 이가 듣고는 놀라서 이렇게 말하였다.
 “저 사람이 어디서 저 모든 것을 얻었을까?
 저런 지혜를 어디서 받았을까?
 그의 손에서 저런 기적들이 일어나다니!”
³ 저 사람은 목수로서 마리아의 아들이며,
 야고보, 요세, 유다, 시몬과 형제간이 아닌가?
 그의 누이들도 우리와 함께 여기에 살고 있지 않는가?”
 그러면서 그들은 그분을 못마땅하게 여겼다.
⁴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예언자는 어디에서나 존경받지만
 고향과 친척과 집안에서만은 존경받지 못한다.”
⁵ 그리하여 예수님께서서는 그곳에서 몇몇 병자에게 손을 얹어서
 병을 고쳐 주시는 것밖에는 아무런 기적도 일으키실 수 없었다.
⁶ 그리고 그들이 믿지 않는 것에 놀라셨다.
 예수님께서서는 여러 마을을 두루 돌아다니며 가르치셨다.

복음 묵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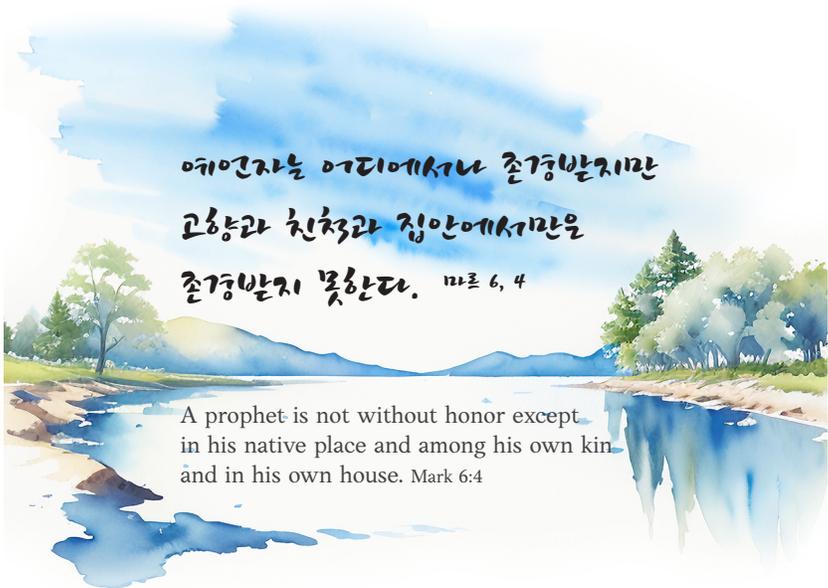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못마땅하게” 여깁니다. 평소에 알고 지내던 예수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이 어디서 저 모든 것을 얻었을까? ... 그의 손에서 저런 기적들이 일어나다니!” 그들은 ‘목수’ 예수님만 볼 수 있는 눈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드러나는 살아 계신 하느님을 전혀 보지 못한 이유는, 그들이 예수님을 잘 알고 있다고 스스로 생각한 ‘고정 관념’ 때문이었습니다.

잘못된 고정 관념은 믿음이 자라지 못하게 합니다. “아무런 기적도 일으키실 수 없었다. 그리고 그들이 믿지 않는 것에 놀라셨다.” 마르코 복음서가 묘사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처럼, 믿음이 없는 마음 안에서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기적을 일으키시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은총을 주실 수 있도록, 이미 만들어 놓은 신앙의 고정 관념들을 깨 버립시다. 고해성사는 주일 미사를 빠질 때만 한다는 고정 관념이 깨질 때, 우리는 하느님과 진실한 관계를 맺기 시작합니다. 본당에서 봉사는 시간에 여유가 있거나 열심히 사람만이 할 수 있다는 고정 관념이 깨질 때, 부족한 나를 통하여 당신의 일을 하시는 하느님을 만나게 됩니다. 미사는 주일에만 간다는 고정 관념이 사라질 때, 우리의 발걸음은 성체 안에 살아 계시는 예수님께 더욱 자주 향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는 큰일이 생기거나 간절히 바라는 것이 있을 때만 할 수 있다는 고정 관념이 깨질 때, 늘 기도하는 은총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느님을 체험하는 은총이 시작됩니다.

믿음이 자라는 신앙생활을 합시다. 스스로 정하여 놓은 신앙의 고정 관념들에서 벗어나 예수님을 새롭게 만나는 신앙인이 되는 길을 선택합시다.

“아무런 기적도 일으키실 수 없었다. 그리고 그들이 믿지 않는 것에 놀라셨다.” 아멘. (최정훈 바오로 신부)



**예언자는 어디에서나 존경받지만
 고향과 친척과 집안에서만은
 존경받지 못한다. 마르 6, 4**

A prophet is not without honor
 in his native place and among his own kin
 and in his own house. Mark 6:4

복음과 성화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예수님

예수회를 창설한 로올라의 성 이냐시오는 자기 동료 제롬 나달에게 선교를 위해 복음묵상을 삽화로 제작하여 배포할 것을 권고했고, 제롬 나달(Jerome Nadal, 1507-1580)은 동판화가 베르나르디노 파세리(Bernardino Passeri, c.1540-1596), 마르틴 드 보스(Martin de Vos, c.1532-1603), 안톤 비릭스(Anton Wierix, 1552-1624) 등의 도움을 받아 153개의 동판화로 『복음서 묵상 삽화(Evangelicae Historiae Imagines)』를 제작했다. 이 삽화의 특징은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각 장면에 대한 설명을 곁들였고,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예수님>은 화집 가운데 40번째 장면으로, 마태오 13,54-58; 마르코 6,1-6, 루카 4,16-30이 그 배경이다.

삽화에서는 먼저 이곳의 장소로 즈볼론 지파의 나자렛이라고 A 장면에 명시되어 있다. 예수님께서서는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당신이 자라신 나자렛 회당에 들어가시어 이사야 예언자의 두루마리를 펴시고 주님의 은혜로운 해를 선포하시며 “오늘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에서 이루어졌다.”(루카 4,21)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고향사람들은 “저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닌가?”(루카 4,22)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에게 “어떠한 예언자도 자기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한다.”(루카 4,24) 하고 이르셨다.

이 내용을 나자렛 회당에 모인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과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있는 군중의 모습이 화면의 오른쪽 맨 위에 B와 C 장면으로 멀리 작게 그려져 있다. 예수님께서서는 고향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한 구약의 예언자들을 예로 들었는데, 구약의 예언자 엘리야와 엘리사에 관한 이야기이다. 엘리야 예언자가 이방인인 사렙다 마을의 한 과부를 기근에서 구해준 이야기(1열왕 17,8-16)와 엘리사 예언자가 시리아의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예수님>, 제롬 나달

장수 나아만의 나병을 고쳐 준 이야기(2열왕 5,1-14)가 그것이다. 모두 예언자를 통하여 이방인에게 은혜로운 일을 하셨다는 내용이다. 이것은 예수님에 의해 이방인들에게 복음 선포가 시작될 것이라는 의미를 내포한다.

나달의 삽화 왼쪽 아랫부분에는 기근에 처한 과부를 구해주는 D 장면이, 그 위에는 나병을 고쳐주는 E 장면이 묘사되어 있다. 그러자 회당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고 화가 잔뜩 났다. 그래서 그들은 들고일어나 예수님을 고을 밖으로 내몰았다. 그 고을은 산 위에 지어져 있었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그 벼랑까지 끌고 가

벼랑 끝에서 떨어뜨리려고 하는데, 그 장면이 F 장면이다.

회당에 모였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벼랑 밑으로 떨어뜨려 죽이려 한다. 예수님 한 사람에 맞서 여러 사람이 온힘을 다해 예수님을 벼랑 아래로 밀어내려 한다. 벼랑 끝에 놓인 예수님은 한발이라도 앞으로 내밀면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위험한 순간에 놓여 있다. 이 장면은 마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 밖으로 끌려나와 골고타산 위에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음을 맞으신 것을 연상시킨다. 예수님의 예언자적 말씀을 거부했던 유대인들의 분노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서는 온 인류의 구원을 완수하시고자 예루살렘 밖 골고타산 위에서 돌아가셨다.

G 장면은 예수님께서서는 그들 한가운데를 가로질러 제자들과 함께 그들을 떠나가는 장면이다. 예수님을 요셉의 아들로만 취급하여 손가락질을 하는 고향사람들을 뒤로 하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등을 돌리며 떠나고 있다. 그리고 그곳에서는 아무런 기적도 일으키지 않으셨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기적을 일으킬 수 없기 때문이다.

<손용환 신부의 성경 미술관>

1 세계 선교를 위한 2차 헌금(7월 20, 21일)

- 알링턴 교구가 선정, 지원하는 모금
- 브라질 살바도로 두 번째 수도원 건립을 위한 2차 헌금이 있습니다. 빈민을 위한 살바도로 수도원은 빈민가 "알토 다 에스테란사"에서 선교하고 있으며, 2022년부터 많은 적자로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두 번째 수도원을 속히 열어서 새로운 성소자를 환영, 형성하고 빈민가인 "알토 다 에스테란사"의 빈곤층을 위해 장기적으로 선교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신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기도와 도움을 청합니다. (호아 파울로 산티아고 신부)

2 2024년 교육부 성경학교 하계 워크숍

- 일시 : 7월 7일(일) 오전 11:30분 - 오후 3시
- 대상 : 성경에 관심 있는 신자 환영
- 문의 : 윤영미 로사리아 (703) 850-2968



3 병자 영성체

- 일시 : 7월 12일(금)
- 신청 : 정 윌리엄 (703) 598-3316 / 7월 10일(수)

4 꼬미시움 월례 회의

- 일시 : 7월 14일(일) 오전 11:30 (하상관 #4,5)

5 연중 영화 상영(교육부)

- 일시 : 7월 12일(금) 오후 8시 (친교실)
- 영화 제목 : The Mission
- 18세기 남아메리카 대륙에서 원주민들을 개종하려는 예수회 선교사들의 갈등을 다루며 정치와 종교의 관계에 대해 생각해 보게 하는 영화

6 주일학교 CCD Summer Camp

- 일시 : 8월 9일(금) 오후 3시 - 8시, 8월 10일(토) 오전 10시 - 오후 6시
- 대상 : Rising 1st grade - 8th grade
- 등록 : 본당 입구, 주일 2시 미사 후
- 문의 : 임형준 이레네오 (703) 624-8196
- 늦게 등록하면 원하는 티셔츠 사이즈를 못 받을 수도 있으니 서둘러 등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 7월 구역 봉사자 / 단체부 소식

- 7월에는 구역부, 단체부, 봉사자 모임이 없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김태진 베네딕토
주임신부님의
영명축일(7월 11일)을
축하드리며
주님 사랑 안에서
영육 간 건강하시기를
한마음으로 기도드립니다.

● 레지오 침묵피정

- 레지오 단원들을 위한 침묵 피정이 7월 26일(금) 부터 27(토)까지 D.C. 가톨릭대학에서 천영수 마론 신부(한국 외방 선교회)의 지도로 열립니다.
- 단원들과 협조 단원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문의 : 꼬미시움 단장 배성훈 디모테오

공지

주일미사 참례에 대한 의무

“주일을 거룩하게 지내라”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신자들은 주일미사 참례 의무가 있습니다. 주일미사 참례는 어느 성당이든, 어떤 미사든 상관없습니다. 주일미사 참례 의무를 지키지 못했을 경우에는 ‘고해성사’를 보셔야 합니다.



교구 황금희년을 위한 전대사

- 알링턴 교구 황금희년을 맞이하여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서는 전대사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 전대사 조건은
 - ① 순례를 위해 성 토마스 모어 성당을 방문하여 성스러운 희년 행사에 참석하고
 - ② 고해성사,
 - ③ 교황님의 지향에 따른 기도,
 - ④ 주님의 기도와 사도신경,
 - ⑤ 복되신 동정 마리아께 바치는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 전대사는 금년 말일까지입니다.



교중미사 예뵐봉헌

07/07 이번 주	프린스 윌리엄 구역
07/14 다음 주	우드브릿지 구역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2024년 6월 30일 (연중 제13주일)

봉헌금	\$ 7,632.00
교무금	\$ 9,970.00
교무금(신용카드)	\$ 1,940.00
감사 헌금	\$ 740.00
2차 헌금	\$ 3,649.00
온라인 봉헌	\$ 2,345.00
합계	\$ 26,276.00

버지니아 성 정바로 성당 제공
KACM TV 하이라이트

Cox Ch. 30, 830
1030
Fios Ch. 30

- 2024년 7월 11일(목) 오후 5:00 - 6:00
- 2024년 7월 12일(금) 저녁 8:00 - 9:00
- 2024년 7월 14일(일) 오전 6:00 - 7:00

1. 주일 강론
2. 교회미술 2천년 : [제 2강] 그리스도교 문명과 미술

Find a Mass near me



여행지에서 가장 가까운 성당과 미사 시간을 찾을 수 있습니다

www.masstimes.org

휴가 중에도 주일을 지키는 신앙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 교황님의 7월 기도지향 |

아픈 이들에 대한 사목적 돌봄

병자성사를 받는 이들과 그들이 사랑하는 이들이 성사로 주님의 힘을 얻고, 모든 이에게 연민과 희망을 더욱 잘 드러내는 표징이 되도록 기도합니다.



미사 시간 안내(Mass Schedule)

주일미사	· 8:00 AM · 10:00 AM(교중미사) · 2:00 PM(학생미사) · 5:00 PM(청년미사)
토요일 저녁 주일 미사	· 7:30 PM
월, 목, 토	화, 금 수
· 6:00 AM	· 7:30 PM · 11:00 AM

“하늘에 보물을 쌓아라”

(마태 6,20)